

Youngeun News

동행

6월

2024년 454호



슬픈 사람

세상사 살다보면 울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소리 내어 울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속울음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을 빨래 짜듯 꼭 짜면 눈물이 푹푹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더 아파하고 계시다는 것.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시 30:11) 

〈글 : 서현이 기자〉

영은교회 창립 주후 1960. 04. 24



월간 동행 영은 홍보부

1984년 4월 27일 창간

발행일 제454호 / 2024. 6. 2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61 영은교회

전화. 02-2676-7171~2

월간 동행 E-mail. yemagazine@naver.com

발 행 인 이승구 목사

지도목사 최광주 목사

편 집 인 김광일 장로

편 집 장 구자민 안수집사

서선이 권사

팀 장 김창원 집사

편 집 서선이 김경원B

기 자 김명희C 서현이 이숙경

사진기자 허영준

디 자 인 디자인 샘

월간 동행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의 삶과
간증을 나누는 교회 소식지입니다.

CONTENTS

02 그림이 있는 풍경

슬픈 사람 / 서현이 기자

04 생명의 말씀

Innovate, 자량과 기쁨이 되는 교회 / 이승구 담임목사

07 믿고알고 알고 믿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 이준희 목사

08 동행

프랑스 교회, 위그노 이야기 [2편] / 이기정 목사 (프랑스)

10 웹진 동행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주관 선교바자회 / 송도숙 권사

마음과 영혼의 쉼터 <영은 도서관> / 나 영 집사

믿음을 치유하라 / 김명희 기자

13 영은소식

고(故) 이순희 은퇴권사 교회장(敎會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 / 명상우 (창년2부)

부르시매 응답하며 / 이숙경 기자

22 선교지에서 온 편지

인도하심 / 신국진 · 안윤정 선교사

23 신앙의 유산

'시인 장로님'의 신앙유산 / 김경섭 은퇴장로

25 뼈뼉하게

나의 할머니의 초기 교육 / 이숙경 기자

26 그리스도인의 향기

조용히 주님께로 가까이 / 김성아A 성도 (6교구)

27 녹색교회 : 녹색계명

녹색 제4계명 : 녹색교통을 이용한다 / 장예은 (팀초록 팀장)

28 교회안내

2024 공동의회 향존직선출

2024년 「월간 동행」 사역자 모집

살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월간 동행과 함께 동역하실
사역자를 기다립니다.

「월간 동행」에서는 성도님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영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거나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면
월간 동행 이메일(yemagazine@naver.com)로 사진과 함께
보내주세요.

편집회의 검토한 후 월간 동행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Innovate, 자량과 기쁨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후서 1:3~4)



글 | 이승구 담임목사

■ 자량과 기쁨을 넘어 감사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자량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살후1:4)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자량은 감사로 이어집니다(살후1:3). 바울이 자량과 기쁨을 넘어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성장’(살후1:3)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편지를 보낸 지 일 년 정도 지난 후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습니다. 그 사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1년 전과 1년 후가 달라야 합니다. 성도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변화와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야 바른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 법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가르침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들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크기(size)’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의 특징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초점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으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엄청난 능력이 발휘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본이 되었고, 먼 데까지 소문이 퍼졌습니다(살전1:7~8).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사람들이 아고라에 모여서 변론하던 것과 달리,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자기 편견이나 고집, 선입견을 배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멘’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간절한 믿음이 담긴 고백을 드렸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했고, 믿음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벧전2:2)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결속이 믿음이 성장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크고 작은 핍박 속에 살고 있었지만,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고, 더욱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습니다(살후1:4).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 결속하여 서로에게 믿음의 격려를 나누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는 ‘결속’,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보살펴 주는 ‘결속’,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결속’이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가정도 믿음으로 결속할 때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여 결속하는 것은 믿음의 성장에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모임에 더욱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도들의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한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알고 믿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배와 모임을 통해 서로 결속했습니다. 그리하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자랑과 기쁨을 넘어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도들을 향한 서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일 년 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살전 4:9~10)

사랑에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기대만큼 결과가 따라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수고를 성가시게 여기지 않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사랑은 데살로니가 안에만 머물지 않고 마게도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었을까요?

형제 사랑은 조용히 행하는 것(살전4:11)입니다. 내적인 변화 없이는 진실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처럼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열매를 맺게 됩니다. 형제 사랑은 절대로 사람의 주목을 끄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 사랑이 풍성해진 비결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내 손으로(살전4:11)’ 행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할 첫걸음은 자기 손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형제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삶의 작은 여유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 손으로 형제를 위해 사용하는 것 또한 형제 사랑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따뜻한 사랑이 느껴져야 합니다. 몇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란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시선과 방법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방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 조용히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내 일과 내 할 도리를 ‘내 손으로’ 성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에게만 시선을 두지 않고 주변에 손을 내밀고 공감해야 합니다.

■ 자량과 기쁨이 되는 영은교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자량을 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 혁신이 바울의 자량과 기쁨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웃과 하나님께 이와 같은 자량과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과 상호 결속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조용히 내 손으로 행하여 형제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Innovate’입니다. 



글 | 이준희 목사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숨을 참고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 살 수 없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은혜 없이 사는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 중요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기도는 사전을 찾아보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것이다.’라고 한다. 기도는 나보다 높은 이, 능력이 있는 이에게 간절히 청하는 것인데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느껴서**다.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생각한다. 기도는 알고 있지만 기도의 능력은 모르는 사람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기도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기대함으로 기

도할 수 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해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한 가지 오류에 빠져있다.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이런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오류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필요를 구하는 것이고 필요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여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모든 좋은 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제목은 없다.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야 한다.

그 어떤 이유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합당하게 할 수 없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가? 짧고 길고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는가, 어떤 간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함을 생각하라. 지나온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하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진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글 | 이기정 목사(프랑스)

프랑스 교회, 위그노 이야기 [2편]

지난 호에 우리는 1500년대 이후에 있었던 프랑스 교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일컫는 ‘위그노들’은 로마 가톨릭교회로부터 박해와 살해를 당하며 위기를 맞게 된다. 하지만 위그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의 개혁 신앙을 꿋꿋이 지켜 프랑스의 개혁교회 그룹들을 탄생시켰다.

그런데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1900년대 초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지금 프랑스 교회 상황은 어떻게? 기독교 국가 아닌가?’ 맞다. 맞는데, 또 틀리다. 프랑스는 기독교 역사를 가진 국가이지만, 기독교 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 프랑스는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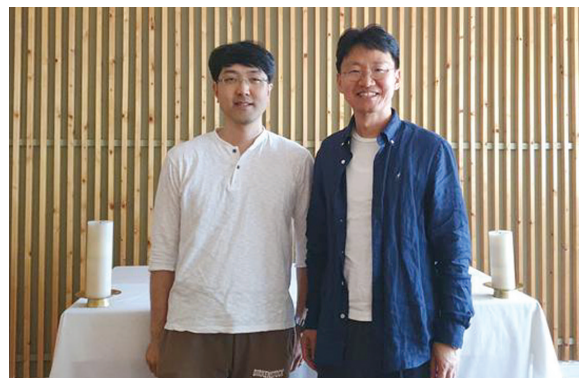


St. Marc 센터 전경(그르노블 한인교회 예배장소)

복음화 비율이 5% 미만인 나라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2017년도 프랑스 개신교 총연맹(FPF)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인구 대비로만 가톨릭

57.5%, 무슬림 10%, 개신교 3.1%, 무신론자 29.9%라고 한다. 개신교인 비율로만 생각하면, 프랑스는 복음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다. 무슬림이 증가하는 속도를 생각하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미전도 종족’이다.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프랑스 정부는 모든 종교 단체들을 국가로부터 분리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프랑스는 어떤 종교도 국교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 법의 영향으로 어떤 종교도 포교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 한가운데에 그르노블 한인교회가 있다.

■ 복음에서 멀어진 척박한 프랑스 땅에 복음의 불씨가 된 그르노블 한인교회



지난해 여름, 그르노블 한인교회를 방문한 이승구 목사님

지난 1월, 새해를 열며 ‘위그노의 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로 교회 제직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 곳곳에 남아 있는 위그노의 흔적을 함께 살피

며, 우리가 물려받은 귀한 믿음의 유산을 확인하고 도전받는 시간이었다. 세미나에 함께하신 분들 모두 그르노블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야기를 전해왔다.



성탄감사예배 촛불점화

하나님께서 그르노블 한인교회를 사용하셔서, 복음에서 멀어지며 척박한 프랑스 땅에 복음의 불씨를 다시 떨어뜨려 주시기를 기도한다. 끝으로, 영은교회 교우들이 이 귀한 사역에 중보하며,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린다. 물리적 거리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영은교회와 그르노블 한인교회가 함께 하여 협력함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나타나기를 소망한다.

“가까운 시일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날을 맞이하기를, 지면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살롬!” 



한불가정 유아세례 모습



교회대표자 회의에서 만난 성공회 목사님



성탄예배 후 교우들과 함께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주관 선교바자회

— 장로회 신학대 도서관 리모델링 기금 마련 —



글 | 송도숙 권사
(영은교회 여전도협의회 회장)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주관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선교바자회가 4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종로구 율곡로에 있는 여전도회관 주차장에서 있었다. 올해 선교바자회의 목적은 학원 선교를 위한 선교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은교회는 전국여전도연합회의 목적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연구를 통해 증명한 항염, 항암, 항당뇨에 좋다는 잡곡 기장쌀을 판매하였다. 우리 교회 여전도협의회 회원 9명은 이른 아침 교회에 도착해 기장쌀을 싣고 현장으로 향했다. 이미 여러 교회가 판매를 시작하고 있었고, 부스를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동참하고 있었다.

식품 및 지역특산물, 의류와 생필품들이 즐비하여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하였으며, 여전도회관 안팎

으로 많은 인원이 선교바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젊은 청년들이 몸에 앞뒤로 음료 메뉴판을 두른 채 소리치면서 판매하는 모습이였다. 청년들이 기존세대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업에 힘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같은 자판대를 사용하면서 함께한 한영교회 여전도회원들과 서로 도와주고 판매도 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무엇보다도 우리 영은의 여전도회원들이 기쁨으로 연합하여 선교바자회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선교현장의 하루여서 감사했다. 판매의 수익금을 여전도연합회로 보내면서 선교바자회로 기쁘고 뿌듯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음과 영혼의 쉼터 <영은 도서관>



글 | 나 영 집사

얼마 전 뉴스에서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일 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 교회의 <영은 도서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도서관이 있다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영은 도서관>은 1층 엘리베이터 바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이 없고, 천장까지 확 뚫린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오셔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랜 역사를 함께 한 <영은 도서관>은 구 성전 교육관에 있다가 2018년 비전센터 완공과 더불어 새로운 도서관(현 중보기도실)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 2년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느 날 소리 없이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도움으로 2022년에 현재의 열린 공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축소되면서 봉사자들이 1년간 일일이 수작업으로 등록했던 5,000여 권의 책을 수용할 수 없어 60~70% 이상을 폐기 처분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작은 규모라도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한 공간으로 지속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상들을 보면, 유·아동부 친구들과 부모님들이 많지만, 예배 전, 후에 공부하는 중·고등부 학생, 책을 읽는 장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전 연령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종이책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대 최저로 독서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동자를 반짝이며 책을 읽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분명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모습일 것입니다.

교인 누구나 회원가입만 하면 주일에 1인당 2권씩 대출도 가능하니, 올해는 책 한 권 읽기에 도전해 보는 성도님들을 기대합니다.

영은 도서관 봉사팀에는 팀장 박서영 권사님을 비롯하여 고민숙, 권현숙, 나 영, 이보름 집사가 주일에 시간을 나눠 조용히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은 도서관>이 많은 성도가 사랑하고, 마음과 영혼의 쉼과 채움이 함께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은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을 치유하라

— “예수동행운동”의 유기성 목사와 함께 한 부흥사경회 —



부흥사경회 강사: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목사)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믿음을 치유하라>란 주제로 부흥사경회가 열렸다. 목사님은 15년 전에 <예수동행운동>과 <예수동행일기>를 시작해 국내외에 확산시킨 주인공이다.

예수동행운동의 핵심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흥사경회 첫째 날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믿음>(히브리서 11:1~6)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며, 영은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동행일기>를 쓸 것을 권면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은혜로 역사하는데, 오늘 받은 그 은혜를 기록해야 잊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목사님은 단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 생활일 뿐이며,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를 믿어 기쁘고 감사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산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야고보서 2:14~26)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믿음은 내 생활에서 생생히 체험되어야 한다. 하나님으로 하여

금 ‘현실’이 되게 해야한다. 유 목사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고 역설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계시면 사람이 바뀐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서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부흥사경회 마지막 날 말씀의 주제는 <믿음을 치유하라>(히브리서 12:1~2)였다. 유 목사님은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는 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죄를 이기는 삶은 믿음의 문제라고 전했다.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게 믿어지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은밀한 죄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믿지 않아서다. 예수님은 내 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유기성 목사님은 세 번의 말씀을 통해,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글 : 김명희 기자>

고(故) 이순희 은퇴권사 교회장(敎會葬)



영은교회 창립교인이었던 이순희 은퇴권사가 지난 5월 19일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5월 20일, 이승구 담임목사님의 집례로 교회장 입관예식이 있었다. 서영목 장로의 기도와 권사회 일동의 조가 후, 이승구 목사님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잠언 1:8)이란

제하의 말씀이 있었다. 이어 권순자A 은퇴권사의 약력소개와 강금애 은퇴권사의 조사가 있었다. 故 이순희 권사의 유해는 영은설악동산에 안치되었다.

故 이순희 권사의 유가족으로 아들 이호근 명예안수집사, 자부 박순옥 권사, 손녀 숙경과 진경이 있다.

다음은 은퇴권사회 회장인 강금애 은퇴권사의 조사 전문이다.

조사 (弔辭)

故 이순희 권사는 1933년 12월에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20살에 이상옥씨와 결혼하셔서 슬하에 이호근 명예안수집사를 두셨습니다.

권사님은 일찍이 혼자되시어 외아들을 지극정성으로 키우셨으며, 1960년 4월 24일 영은교회 창립교인으로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셨습니다.

故 이순희 권사님은 평소 온화한 성품으로 따뜻하게 교인들을 섬기며 대해 주셔서 많은 교인의 귀감이 되셨습니다.

권사님은 1990년도에 권사 임직을 받으시고, 2003년 은퇴하시기까지 봉사부와 해외선교부 등에서 말없이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1990년대 동서선교회 초청으로 한국에 와 신학공부를 했던 러시아 선교사들은, 10여 년이 지난 후에

도 러시아를 방문한 영등포노회 산하의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한국에 와 있는 동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성심껏 섬겨주셨던 권사님의 안부를 묻기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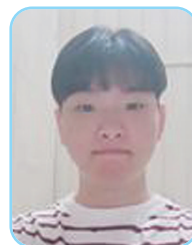
권사님은 2017년 9월에 노환으로 요양원에 입원해 투병하시다가 2024년 5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평소에 애지중지하셨던 아드님과 며느님, 두 손녀가 천국으로 가시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권사님의 기도와 인품을 기억하면서 고통도 질병도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 곁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동행)

주후 2024년 5월 21일
은퇴권사회 회장 강금애 권사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

— 청년부 헌신예배 —



글 | 명성우 (청년2부)

■ 뜻깊었던 청년부 헌신예배

5월 19일 주일은 성령강림주일이자 청년주일로 지켜졌다. 이날 청년부 예배에서는 이승구 담임목사님께서 <보살핌이 찢힘이다(신24:22)>란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특별히 청년주일 오후예배는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렸다. 찬양팀 테루아의 찬양과 김민식 목사님의 <아름다운 신앙공동체>란 제하의 설교 후 청년부 특송이 있었다.

이날 청년부 헌신예배에서는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 때 들려주신 이승구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더욱 뜨거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 뜻깊고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문득 점차 다가오고 있는 수련회가 기대되었다.

또한 헌신예배 때 불렀던 “우리 주를 만나고”란 특송을 통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헌신하기에도 부족한 청년의 때에 세상의 가치만 좇아가고, 나 자신이 가장 중요했던 시기를 보내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영은교회를 통해 주님의 곁에 돌아오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했다. 헌신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믿는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행복했다.

최근 약 200명 내외의 청년들이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금은 취업과 이직, 시험과 축제 등 바쁜 시기라는 것을 너무 잘 안다. 그럴수록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에 예배에서 더 많은 청년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길 기도한다. 소그룹 모임에서 더 많은 청년을 만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공동체가 되길 기도한다.



청년부 헌신예배를 마치고

■ 다양한 사역과 예배에 집중하는 청년부

교육 2부에 속해 있는 청년부는 서영목 부장장로님과 김민식 목사님(청년1부), 이찬양 목사님(청년2부)의 지도를 받고 있다. 청년부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뉜다. 20살부터 26살까지의 청년들은 청년1부에, 27

살부터 34살까지의 청년들은 청년2부에 속해 있다. 청년들의 신앙훈련과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위해서 훈련센터와 영은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부에는 여호수아, 테루아, 서라운드, 드림, 로드뷰, 아우름, 필로스, 오이코스, 소나기, 아바드, 중보기도 팀 등 다양한 사역팀이 있다. 특별히 2024년에는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기 위하여 중보기도 모임에 힘쓰고 있으며, 매달 넷째 주에는 중보기도 팀의 인도로 각 사역 팀별 중보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청년부의 재적인원은 약 330명이며, 평균 출석 인원은 약 190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부에 매주 새가족들을 보내주고 계시며, 1/4분기 기

준, 등록된 새가족의 80%가 새가족 수료를 하여 청년부에 정착하였다.

청년부는 성도의 근본이 되는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예배와 공동체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한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보다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진정한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고 있다. 2024년 '영은, 혁신하다' 라는 표어와 같이 영은 청년부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을 닦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이코스 새가족팀



아우름팀(미자립교회 사역)



중보기도팀



필로steam(노숙자 사역)

부르심에 응답하며

— 공동의회 결과 —

편집자 주 : 지난 5월 26일(일) 오후 예배시간에 임직자 선출이 진행되었다. 투표권은 당일 3시 30분까지 1층 로비에서 본인 확인 후 스티커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교인 외 외부인이 참여하는 등의 부정을 최소화하였다.

투표 방식은 당회에서 결의된 장로 후보 3배수, 안수집사와 권사 후보 각각 2배수를 후보자로 선정한다는 교회법을 기조로 후보를 선출하여, 3차까지 전자투표방식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였다. 장로의 경우 2/3이상, 안수집사와 권사의 경우 1/2이상의 표를 얻으면 선출된다.

이번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인원은 다음과 같다.

1차 696명이 투표하여 장로 이도수 1명, 안수집사 정원준, 이지윤, 김창원, 전용주, 연상훈, 최종성, 김정희C, 최정훈 등 8명, 권사 강인애, 김경원B, 박상신, 김연숙A, 염

용희, 조지영A, 진경애, 주영희, 김미향A, 주영경, 송주희 등 11명이 당선되었다.

2차는 655명이 투표하여 장로 김석진, 안수집사 최춘호, 이성호B, 서정범, 박용철, 박호균 등 5명, 권사 한기숙, 강은주, 김영순A, 김연숙B, 마명숙, 권계정, 허신영 등 7명이 당선되었다.

마지막 3차는 470명이 투표하여 장로 공현진, 김철수 등 2명, 안수집사 유근만, 정재면 등 2명, 권사 노현숙, 김정숙C 등 2명이 당선되었다. 이로써 올해 임직자 선출로 당선된 인원은 장로 4명, 안수집사 15명, 권사 20명으로 총 39명이다.

다음은 장로로 선출된 4인의 선출 소감이다. 

〈정리 | 이숙경 기자〉

피택 장로 (4명)

이도수 피택장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부족한 제가 장로로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해준 모든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마중물과 같이

헌신과 순종의 자세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영은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혁신으로 더욱 풍성해지도록 성장하는 가운데, 담임목사님의 사역과 당회 방침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일을 맡겨주시더라도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임을 기억하고, 초심을 버리지 않는 일꾼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진 피택장로



부족한 저를 장로로 피택해 주심에 하나님과 영은교회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처럼 장로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작정한 시점에,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가슴에 간직하고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혁신하다”라는 올해 교회 표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삶으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새롭게 혁신하며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처럼,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공현진 피택장로



하나님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제가 영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원과 하나님의은혜로 장로로 피택 받았습
니다.

저의 주관자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주셔서 천국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주변에 널리전하는 사람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약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다짐하겠습니다. 다만 기도하면서 주님이주시는 은혜대로 실천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김철수 피택장로



부족한 자를 장로로 피택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은교회가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길을 찾아 해매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을 지켜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며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피택 안수집사 (15명)



정원준
피택안수집사



이지윤
피택안수집사



김창원
피택안수집사



전용주
피택안수집사



연상훈
피택안수집사



최종성
피택안수집사



김정희C
피택안수집사



최정훈
피택안수집사



최준호
피택안수집사



이성호B
피택안수집사



서정범
피택안수집사



박용철
피택안수집사



박호균
피택안수집사



유근만
피택안수집사



정재면
피택안수집사

피택 권사 (20명)



강인애 피택권사



김경원B 피택권사



박상신 피택권사



김연숙A 피택권사



염용희 피택권사



조지영A 피택권사



진경애 피택권사



주영희 피택권사



김미향A 피택권사



주영경 피택권사



송주희 피택권사



한기숙 피택권사



강은주 피택권사



김영순A 피택권사



김연숙B 피택권사



마명숙 피택권사



권계정 피택권사



허신영 피택권사



노현숙 피택권사



김정숙C 피택권사

인도하心

—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

글 | 신국진 · 안윤정 선교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 1:3)

나마스까르~

인도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문안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한데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소산으로 오늘의 걸음을 걷습니다. 지난 4월은 이 땅에 온지 11년이 되는 달이었습니다. 모든 걸음의 주인되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앞으로 더욱 마음을 다하여 걷는 걸음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과 이 땅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기도와 후원에 감사합니다.

1. 사역 : 디모데 펠로십

인도 지역 교회와 협력한지 10년이 되었지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도 또 고쳐야 할 부분도 많지만 이들의 사역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일이 때론 있습니다. 아는 상식과 지식으로 먼저 지적했다가 이들에게 무거운 명령이 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 수 있기에 더욱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어린이 사역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알지만 기다려야 하기에 그저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올해 초 목사 모임에서 모아 목사가 조심스레 어린이 사역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이때라는 생각이 들어 저도 거들었습니다. 모두가 저의 말에 동의해 주었고 더욱 체계적인 어린이 사역 위해 리더를 세우고 사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명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세워진 리더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며 사역을 격려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 앞으로의 사역이 더욱 활기차고 열매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1) 어린이 주일학교



▶ 각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어린이 사역의 리더들

5월은 인도 아이들이 방학을 합니다. 이번 여름도 지난해와 같이 수박파티를 합니다. 수박에 있는 검은색 씨, 빨간색 수박, 하얀색 속 껍질, 초록색 겉 껍질을 통해 복음을 전합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날짜, 담당자, 지역)

5/8 말라카, 바라이뿌르

5/10 언저나, 부리아빨라

5/12 고덤, 조하띠

5/14 써스미따, 가리아

5/26 다이아몬드하버 외

5/9 모니카, 물룽가

5/11 리빠까, 본호꼴리

5/13 로힛, 라니아

5/20 루마, 노푼 디아라

2) 가정교회 예배



▶ 본호꼴리 가정교회

▶ 고리아 가정교회

▶ 어머니께서 인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 측량작업



▶ 기초작업



▶ 외벽작업

3) 교회 건축 현장

6월 중순이면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외벽과 지붕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이후 내부 시설과 인테리어를 진행할 예정인데 아름다운 교회가 꾸며지도록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진심함과 최선을 다하여 일하는 디모데 가족되길 기도해 주세요.

2. 가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큼니다. 저희 부부, 아이들 모두 건강히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순에는 어머니께서 잠깐 인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임종 이후 가지지 못했던 시간을 보내며 함께 기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5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입니다. 동역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3. 두 손 모아 기도해 주세요.

1. 인도의 날씨가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현재 콜카타는 40~45도 가량의 날씨인데 이 땅의 백성들이 고통 받지 않고 안전하게 거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디모데 펠로십 라니아 교회의 기초공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손을 붙드시고 튼튼한 기초가 세워지고 이후 건축을 잘 이뤄지길 기도해 주세요.
3. 각 지역마다 어린이 사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 전도와 함께 어린이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통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기대하고 특별히 준비하는 리더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길 기도해 주세요.
4.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사역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한국 방문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신앙의 유산 : 김경섭 은퇴장로

‘시인 장로님’의 신앙유산



김경섭 은퇴장로

우리 교회에는 ‘시인 장로님’이 계신다. 김경섭 은퇴장로님이 그 주인공이다. 내 오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장로님은 교육자이자 시인이셨다. 장로님의 시는 특별한 때마다 『동행』에 게재되곤 했다. 학교 국어 교사이자 교회 중등부 교사였던 김경섭 장로님은 평생 교육에 몸담았던 ‘시인 교사’였다. 올해로 93살이 된 장로님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장수하고 건강해요!”라며 활짝 웃는다.

■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다

김경섭 장로님은 1931년 8월 3일 황해도 수안군 대성면 내덕리(생금촌)에서 5남매 중 3남 막내로 태어났다. 당시 부모님은 불교 신자였다. 가족 모두가 불자로 살았다. 이후 장로님이 ‘믿음의 씨’가 되어, 온 가족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앞줄 좌로 : 김광수 장로, 허남기 목사, 김병관 장로
 뒷줄 좌로 : 김섭인 장로, 정승관 장로, 라기성 장로, 김경섭 장로

장로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건 군대에서다. 장로님은 1954년 7월, 마산 군인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다. 23년 만에 장로님 가정에 최초의 기독교 신자가 탄생한 것이다. 장로님은 “6.25가 큰 복”이라고 회고한다. 황해도가 고향인 장로님이 6.25 전쟁이 발발하자 남쪽으로 피난 오게 됐고, 휴전 이듬해에 군대에 입대했다. 그 군대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큰 복’을 받은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후 장로님은 부모님과 형제들을 전도해 모두 신앙인이 되었다.

장로님은 제대 후 영서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이어갔다. 이웃 교회이자 우리 교회와 교단이 같은 영서교회는 김청달 목사님이 1956년에 영등포구 양평동 2가 409번지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창립된 교회다. 김경섭 장로님은 영서교회 창립 교인이었다. 7년이 지난 1963년에 영은교회의 창립 교인이었던 김광수 장로의 모친 김재석 권사의 권유로 영은교회에 등록하게 됐다.

영서교회 김청달 목사님은 장로님에게 “믿음 좋은 집의 자제와 결혼하라”고 조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 교사의 주선으로 김명화 권사를 만나게 됐다. 권사님은 아버지가 장로였고 어머니가 권사였던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분이였다. 장로님이 김명화 권사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김청달 목사님의 말씀대로 ‘믿음 좋은 집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1962년 4월 3일에 장로님은 김명화 권사님과 결혼식을 올렸다. 이듬해에 두 분은 영은교회에 등

록 교인이 됐다. 김청달 목사님도 이후 영은교회로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생을 마치셨다.

■ 시인 & 교사가 되다

김경섭 장로님은 제대 후 중학교 국어교사가 됐다. 놀라운 건 중학교 밖에 안 다닌 장로님이 국어교사가 된 것이다. 여기에는 장로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숨어있었다. 6.25 전쟁으로 중학교 교육만 받은 장로님이 남한에 내려와 혼자 공부를 해서 경기공업보통사범학교(현, 서울교육대학교 전신)에 입학했다. 졸업 후 서울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김명화 권사님의 병환으로 교편을 접어야 했고, 권사님이 운영하던 학원(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등)을 돌보기 시작했다. 장로님이 ‘시인’이 된 것은 초등학교 때 글짓기를 통해 문학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다. 어른이 된 장로님은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시인의 꿈을 키울 수 있었다.

■ 영은교회는 가장 건전한 교회입니다



교회창립 30주년 장노 장립식기념1990. 4. 22

앞줄 우로 세 번째 : 김경섭 장로
뒷줄 우로 세번째 : 김명화 권사

김경섭 장로님은 1963년 영은교회에 등록한 후 줄곧 중등부에서 교사로 봉사했다. 장로님은 교회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있던 1990년 4월 22일에 장로 임직식을 가졌으며, 2001년 12월 30일에 은퇴하시기까지 11년 동안 장로로서 헌신하셨다. 장로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목회자를 꼽는다면, 제1대 박조준 담임목사다. 장로님을 영은교회로 이끌어 준 분이기 때문이다. 장로님은 영은교회의 가장 큰 자랑은 ‘교회의 건전성’이라고 한다. “우리 교회는 건전한 장로교회입니다. 가장 건전한 교회가 장로교 통합 교단 교회인데, 그중에 영은교회가 가장 건전합니다. 영락교회, 새문안교회와 나란히 영은교회도 최고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은교회에 대한 장로님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래서인지, 장로님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교회가 항상 재미있어서 힘든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93살의 장로님은 10년 전 김명화 권사님(2014.12.11. 별세)을 먼저 주님 곁으로 보내고 현재 아들 김태화 집사와 함께 산다. 김명화 권사님은 송의여전 유아교육학과를 나와서 평생 어린이 교육에 삶을 바치셨다. 살아생전에 시부모님을 잘 모셔서 “영등포 효부상”을 받기도 했다. 김경섭 장로님과 결혼하기 전 권사님은 “시부모님은 생전에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언약했는데, 그 약속을 평생 지킨 것이다. 김명화 권사님은 1991년에 권사에 취임해 2007년에 은퇴했다. 장로님은 슬하에 2남 1녀(태선, 은주, 태화)를 두었다. ‘시인 장로님’의 바람이 있다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다. “예수 믿으면 건강 주셔서 장수합니다.” 장로님이 주는 최고의 신앙유산이다. 

〈인터뷰 글 | 김명희 기자〉

나의 할머니의 조기 교육

글 | 이숙경 기자

나는 모태신앙이다. 내 부모님은 영은교회에서 결혼 하셨고, 나와 내동생은 영은유치원을 졸업했다. 어릴 땐 사찰집사님의 본당 청소기를 끌고 다니며 놀았고, 앞마당의 나무를 타며 자랐다.

내 신앙의 근원은 할머니였다. 그런데 할머니가 내 신앙을 키워주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하면, 아니다.

날 위해 기도하셨나? 그렇다. 어릴 때 난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잤는데, 자기 전에 늘 같이 기도하곤 했다. 같이 찬송가를 불렀나? 그렇다. 할머니의 화장대 위에는 나달나달한 찬송가가 항상 놓여 있었다. 함께 교회에 출석했나? 그렇다. 할머니는 교회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셨는데, 맛별이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늘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교회학교 수련회의 식당 봉사를 위해 먼 지방에 갈 때에도 나는 할머니를 따라다니곤 했었다.

그런데 왜 내 신앙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느냐 하면, 나에게 그것은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할머니 친구인 권사님, 집사님들 사이의 재롱둥이였다. 권사님들이 노래 한 곡 하라고 부추기면 선뜻 어린이 찬송을 불렀다. 교회 김장을 할 때에도, 성찬식 포도주를 담글 때에도 난 할머니와 함께 거기 있었다. 부흥회 때에도, 신년 예배 때에도, 장의자에 누워 자는 한이 있어도 거기 있었다. 나에게서는 월화수목금토일 교회에 가는 게 일상이었다. 오죽하면 어느 평일에 ‘우리 교회 짱 좋다’고 동네 친구를 꼬셔 교회까지 왔다가, 문이 굳게 닫힌 유치부실에 대혼란을 느끼

며 집에 돌아갔던 적도 있었다.

할머니는 내 삶이 교회에 머물게 하셨다. 덕분에 내 인생 최악의 사건과 가장 힘겨운 일이 모두 교회에서 벌어졌으나, 그럼에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못했다.

성경 속에도 조기 교육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 바로 ‘사무엘’이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는 그를 앗혀두고 회초리를 휘두르며 ‘자, 성경에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니 꼭 외우렴.’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쫓겨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랐다. 그가 먹고 자고 놀던 곳은 성막이었다. 그의 부모가 그를 그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신 것이다.

세상의 조기 교육은 매우 체계적이고 강압적이다. 가르친대로 하지 않으면 혼이 나고, 머리로 이해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한다고 다그친다. 어쩌면 우리는 신앙의 교육도 세상의 교육법을 따르려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다른 교회만의 조기 교육법이 있을 것이다.

믿음은, 신앙은, 어려운 것도 골치아픈 것도 아니다. 혼이 나며 배워야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의지가 되는 것이며, 특별하다 여기지 않을 만큼 일상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느날 장성한 자녀들이 문득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다.

아, 내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 주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고. 

조용히 주님께로 가까이



글 | 김성아A 성도 (6교구)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친정 어머니께서 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 주셔서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영은교회는 2018년 결혼(남편 하성원 집사)과 함께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에 교회에서의 생활에는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는 처음이라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어떻게 어울릴까 염려 하였으나 그것은 저의 기우 였다는 것을 시간이 조금 흐른 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속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제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샤론, 갈릴리 찬양대에서, 그리고 남편은 4부 찬양대에서 전자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하는 봉사에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리는 것만 겨우 챙기던 남편이 지금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감사할 뿐입니다. 찬양을 통해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더 감사 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변화된 모습에 시부모님들께서도 크게 기뻐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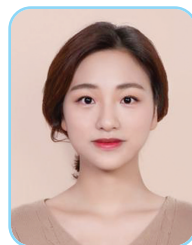
저희는 가을에 쌍둥이 부모가 됩니다. 태어날 아기들에게 저희 부모님들께서 저희에게 하신 것처럼 믿

음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을 위하여 기도 할 때 저희의 뜻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자라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거울이 되어주신 부모님의 모습을 되짚어 보며 아기들을 키우려 합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문득 차에 달아놓은 작은 십자가를 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은 주님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작은 교회에서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하시는 친정 어머니께서는 항상 교회에 일손이 필요한 곳에 계셨습니다.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신 친정 어머니처럼 저도 교회에서 필요로하는 곳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낮은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고 싶습니다.

항상 조용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지켜 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녹색 제4계명 : 녹색교통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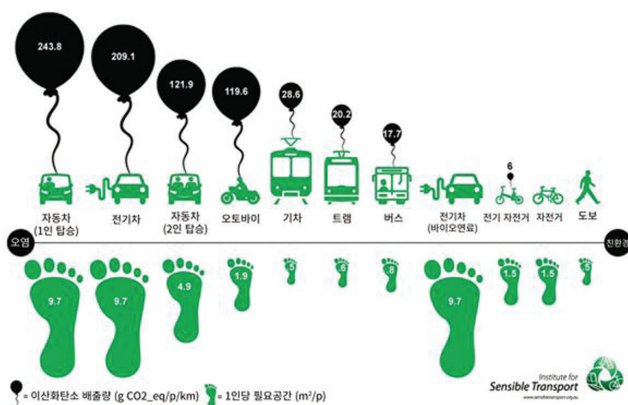
글 | 장예은 (팀.초록 팀장)

녹색교통이란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탈 것 중에서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탄소 배출은 화석 연료 사용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산화탄소와 같은 탄소 기체들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현상이다. 사람이 숨을 쉴 때에도 한 명당 하루에 약 1kg, 일 년에는 34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한다. “아니, 그렇다면 난 숨도 쉬지 말아야 하는 건가?” 그래서 지구 열대화 (Global Boiling)의 시대를 맞이한 인간은 절망하기가 쉽다. 이때 신앙인은 다르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절망하듯이 기후 위기로 인해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지구를 지키고 가꿔나가자는 마음을 이제라도 먹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모두를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신 것처럼, 세상 모든 생명을 섬기는 지구 청지기로 거듭나는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교통수단 중 무엇이 가장 탄소배출이 적은지 그림과 함께 알아보자.

가장 쉬운 것은 걷기다.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으며 가장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다. 주변 환경도 둘러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 시간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것을 선택해보자. 그 다음으로 추천하는 것은 자전거다. 중고 자전거를 사거나 공유 자전거(따릉이)등을 이용해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이동

성, 교통혁신 및 정책개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단체인 Sensible Transport가 제공하는 그림을 보면, 대중교통도 좋은 선택지라는 걸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휘발유 자동차의 평균 연료 소비량은 1533.82L이며 연료 1L당 이산화탄소를 2.148kg 배출하니 자동차 1대당 연간 약 3,294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이다. 이것만 주 1회 대중교통으로 바뀌도 연간 218.5L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연간 약 469.6kg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의 몇몇 녹색교회는 매월 몇 번째 주일은 자동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실천하고 있다. 꼭 차로 이동해야만 한다면 출발지가 가까운 여러 명이 함께 타는 ‘카풀’을 선택해도 좋을 것이다. 지금부터! 행동하는 영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 교회를 섬기는 분들

원 로 목 사 허남기
 답 입 목 사 이승구
 부 목 사 최광주 이준희 이예리아 박대원 정성훈
 한진구 신요한 김민식 이찬양
 교 육 목 사 전수현
 전 도 사 장미애
 교 육 전 도 사 나진희 박선민 김영락 김찬영 김희창
 황예찬 손예지
 파 송 선 교 사 구용회 백현이
 협 동 목 사 소병찬 김규리

▶ 영은교회 예배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본 당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00	
	4부 오후 1:30	
오후예배	오후 3:30	본 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본 당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30	본 당
금요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본 당
영아부	주일 오전 11:00	1층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2층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소년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5층
꿈자람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2층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고등부	주일 오전 9: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제자학교	주일 오전 10:0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청년부	주일 오후 1:30	비전센터 비전홀 3층

▶ 영은교회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영은교회

www.younggeun.or.kr

월간동행 e-mail : yemagazine@naver.com